

기도

1.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눔

1.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임을 믿습니까?
2. 삶 가운데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각자의 방법을 나눠주세요.

신앙

감사

성경에서의 감사는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가져야 할 태도로 나타난다. 구약에서 '감사'를 나타내는 단어는 히브리어 '야다(יָדָה)'로써 '고백하다'라는 뜻이다. 이 단어가 '찬양하다', '감사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에는 목적어를 하나님으로 두었다. 또한 신약의 '감사'는 헬라어 '유카리스티아(εὐχαριστία)'인데, 이 단어는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감사'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임을 알 수 있다.

구역 공과

2023년 3월 26일

하나님께 감사하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사야 2장 2-4절)



하나님께 감사하자

시편 136편 4-9절 (찬28장, 303장)

본문은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큰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받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4-6절).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크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깨닫고 그 분께 감사해야 합니다(4절). 하나님께서는 첫째,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습니다(5절).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인 세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지혜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큰 신령한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롬6:23).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약속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아낌없는 은혜를 통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한 은혜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키며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기이한 일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많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땅을 물 위에 퍼셨습니다(6절). 땅은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땅에서 시작되고 땅 위에서 생명을 누립니다. 우리 사람도 땅이 있어야 생육하고 번성하며 삶을 이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땅을 하나님께서 물 위에 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모든 생명의 근원인 땅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땅을 물 위에 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서 있는 땅이 하나님이 주신 곳임을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펴서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큰 기이한 일을 통해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할 때, 더 큰 은혜와 감사할 것들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큰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7-9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창1:2).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빛을 만드셨고, 해로 낮을,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의 해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육신에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밤에는 달과 별을 통해 어둠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빛들을 통해 우리의 육신을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돌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와 같은 진리의 빛으로 죄를 밝혀 주십니다. 우리는 진리의 빛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요1:12).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달과 별로 삼아 주셨습니다. 달과 별이 햇빛을 통해 밤하늘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의 빛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추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복음을 듣는 이들의 영도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는 큰 빛으로 우리를 돌보시며 진리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빛을 통해서만 믿음을 얻고 죄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 힘쓸 때 모든 것이 빛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맺 음 말

그러므로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큰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세계인 하늘에서 우리를 지혜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땅 위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죄사함을 얻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진리의 빛이 비취질 때 우리 뿐 아니라 모든 것들이 빛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감사하고 그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